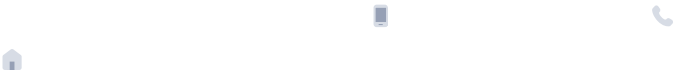


이은솔 신입



<b>학력</b> 대학교(2,3년) 졸업 대전과학기술대학교	<b>전공</b> 외식조리제빵계열 ...	<b>업무경험</b> 총 6년 7개월 (퇴사) 아웃백스테이크하...	<b>희망연봉</b> 회사내규에 따름	<b>포트폴리오</b> <a href="https://eunso...">https://eunso...</a>
--	---------------------------	---	-------------------------	---

나의 스킬

- 퍼블리싱
- Adobe Illustrator
- Powerpoint
- Excel
- Mongo DB
- Node.js
- 한컴오피스한글
- Bootstrap
- jQuery
- React.js
- JavaScript
- CSS3
- HTML5
- Adobe Photoshop

**학력** 2013.03 ~ 2015.02 (졸업)  
대학교(2,3년) 졸업

2010.03 ~ 2013.02 (졸업)

**경력** 2014.12 ~ 2021.06 · 6년 7개월  
총 6년 7개월

**경험/활동/교육** 2022.12 ~ 2023.06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산대특>리액트(React), 리액트네이티브 EXPO 활용 프론트엔드개발자 양성과정

##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 기타

<https://github.com/EUNSOLY>

### 포트폴리오

<https://eunsoly.github.io/portfolio/>

작업기간 | 0000.00.00~0000.00.00

작업인원 | 1명

작업 툴 | HTML, CSS, Javascript

작업내용 | HTML, CSS, Javascript로만 구성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했으며 총 6개의 프로젝트가 시연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첫 화면은 Canvers태그를 사용하여 복권을 긁는 듯한 모션으로 시작되며 About skill 은 json파일로 fetch API를 활용한 비동기 동작을 구현되었으며 Project는 자동슬라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 자기소개서

### 성장 과정

«남들과는 다른 책임감을 느끼게 된 환경»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한 유년 시절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에 조금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아버지께 식사를 차려드리는 게 재미있어 요리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고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교 또한 조리 전공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면접 기회가 주어져서 조금 이른 나이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직원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웃백에서 6년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근무하며 본사 오프닝 트레이너팀으로 지원 및 신규매장 오픈, 본사 마케팅 업무 지원 등으로 아웃백 내부에서의 활동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였고 저의 활동을 바탕으로 BOH 매니저라는 직책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니저로서는 담당 지역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의 매니저였고 그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집요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매니저로 근무 당시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저를 이끌어 준 선임분들처럼 동료 직원들도 나의 성장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동료들이 매니저로서 성장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껴왔던

순간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제가 일하면서 이런 열정과 즐거움을 얻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큰 난관이 생겼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성취감이 느껴질 때 많은 동기부여를 얻고는 합니다. 조금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고 열정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하여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빠른 발전을 하는 개발자 환경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성격의 장단점

« 저의 장점은 함께 근무하고 싶은 사람 »

아웃백 근무 당시에 많은 동료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료들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된 저의 장점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할당된 업무의 기한을 넘긴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업무에 할당된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어도 저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근무 일정표의 경우 1주를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업무였고 일정표 특성상 돌발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일 업무 완료 후 실제 기한까지 한 번 더 체크 및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 기한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저의 근무 포지션은 주방(BOH)이었기에 직접적으로 고객 응대를 진행할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홀 담당자들이 출근 전 고객 항의로 인한 전화가 걸려 왔고 이에 따른 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항의였기에 주방 담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고객의 얘기를 먼저 주의 깊게 듣고 불편하였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후 고객분의 불편한 점이었던 음식 관련되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인 서비스영역은 홀 담당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상황에 대한 전달 후 특정 시간까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를 끊기 전 '응대를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간 업무 우선 강도에 따른 마찰이 있을 때 양쪽 입장을 우선 들어주고 난 뒤 함께 모여 제 생각을 이야기한 뒤 업무 재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며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자주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럴 때 저를 찾아와 준 동료들과 중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갔고 이때,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에게 가끔 그때가 생각난다며 고마웠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 나의 단점은 '아니요'라는 말이 힘들다 »

제가 가진 단점 중 하나는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거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기 싫은 마음이 들거나 하면 종종 '아니요'라는 거절하기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업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현재는 정확한 거절에 대한 이유를 전달하여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 학교생활 및 사회 경험

«오늘과 내일이 다른 개발자»

독학으로 웹 퍼블리셔를 준비하다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배움을 얻고자 '그린아트 컴퓨터학원'에 찾아가 상담받고 산대특리엑트(React), 리엑트네이티브 EXPO 활용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 과정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HTML, CSS, Javascript, jQuery, Bootstrap, Swiper, Node.js, express.js, MongoDB, React, ReactNative 등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마크업 언어와 프로그래밍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언어에서 파생된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여 총 6개의 프로젝트와 모바일 앱 개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팀 프로젝트는 제일 처음 진행했던 '술담화' 사이트 리뉴얼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 사이에 팀 프로젝트를 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 팀원들과 회의 및 정리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술담화 사이트 리뉴얼을 위한 팀원이 꾸려졌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작업의 진행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이라 의견을 내는 부분이 서먹하게 진행되었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자 사이트를 보고, 수정이 필요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을 열심히 내는 팀원도

있었지만, 소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팀원이 있어 해당 팀원에게는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회의 전 구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팀원들과 공유 후 회의마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팀원 1명이 출석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협업 도구인 Figma를 통해 함께 작업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Figma와 Slack을 통해 출석을 못 했던 팀원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이 해당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슬담화 사이트 리뉴얼은 HTML, CSS, Javascript로만 진행하고 라이브러리는 Swiper를 사용하였는데 수업을 진행하며 첫 프로젝트로 진행하다 보니 마크업 구조 스타일링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Swiper를 커스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팀원 1명이 HTML 구조문 작성을 힘들어해서 해당하는 부분은 팀원들과 회의 시간에 각자 코드를 공유하고 구조가 맞지 않거나 스타일링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갔습니다.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6개월간의 직업훈련이 종료된 시점 React와 Node.js로 HTTP 통신, API 사용 등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하며 첫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마크업 구조문 작성은 웹 표준에 맞춰서 작성하고 있으며, Swiper 커스텀 또는 Bootstrap 등의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커스텀하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웹 퍼블리셔 취업을 목표로 했을 때 계획하였던 컴퓨터 그래픽 운용기능사와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완료하였고 현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1회차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웹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리인 Canvas와 Three.js에 관심이 생겨 추가 공부 중이며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로그래밍언어 중 기본이 되는 모든 Javascript에 대해서 개념 정리와 문제 풀이 등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공부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언어 등 배움에 대해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공부할 자신이 있으며 현재도 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지원 동기

<<배움에 두려움이 없고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저는 벽에 부딪히고 깨져도 다시 도전해서 같은 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큰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근무할 당시 내부적인 활동을 했을 때 외부의 사람이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선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전공자로 시작한 웹 퍼블리셔를 준비 중인 분들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도전할 수 있고 타인이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남는다니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욕구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껏 이뤄온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도전할 것인지 안전한 길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하고 싶다, 할 수 있다'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그때부터 일러스트, 포토샵 등 디자인툴을 주제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그래픽 운용기능사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독학하며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어 직업학원을 찾아갔고 거기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설명을 듣고 관련된 포트폴리오와 자료들을 보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더 무궁한 배움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과 알 수 없는 매력에 빠져들어서 수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처음 HTML, CSS를 통해 화면에 그려지고 Javascript를 통해 브라우저가 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제가 작성한 코드로 화면이 그려지다니라는 생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한 Javascript를 만나면서 많은 오류를 만났는데 처음엔 왜 오류가 나는 부분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오류가 해결했을 때의 쾌감 또한 잊히지 않는 장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 프론트 개발자라는 직군을 작게 경험해 보았고 제가 작성한 코드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까지 함께 로직을 구성한다는 점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성취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입사 후 포부

<<이런 삶의 자세로 마주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태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짓도 허용치 않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반복된 실수는 집중력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늘 공부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얻은 결론은 공부는 끝이 없고, 멈추지 않는 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료도 행복해야 함을 경험했습니다. 동료로부터 함께 일해서 힘이 나고 즐겁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와 귀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